

기성세대가 결혼문화 바꾼다

변화의 주역 이젠 부모세대가

파격 결혼 부모가 주도, 부부 공동주례, 청첩장 안돌리기, 하객은 친지로만

기성세대도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가?

검소하면서도 개성있는 결혼식이 어른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보면 필경 변화는 신세대만의 몫은 아니다.

이제는 형식을 파괴하는 결혼문화가 차츰 윗세대로 전이해 가면서 '우리도 신세대'임을 자처하는 기성세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14일(목)에 있었던 이수진, 윤지환 부부의 결혼식은 아마 국내 처음으로 시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쌍주례로 진행돼 하객들을 놀라게 했다.

쌍주례의 주인공은 손덕수(효성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이삼열(숭실대 철학과)교수 부부. 신부의 아버지 이재근(서울신문사 이사)씨의 대학동창이기도 한 이교수는 양가 부모의 부탁으로 부부 공동주례를 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동창들끼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축하해주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보기 위해 색다른 방법을 모색하던 중 쌍주례를 생각해 내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끌어 온 이 교수 부부에게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기존의 결혼형식이 점점 변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앞

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신부 아버지 이재근씨는 식상한 결혼식을 탈피할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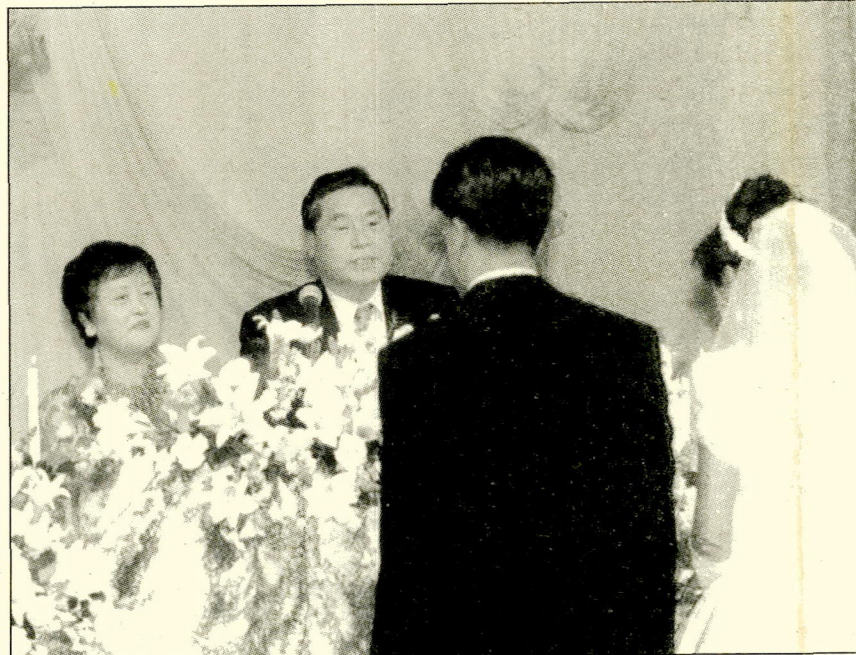
부모님들이 정한 결혼형식에 신부 이수진씨와 신랑 윤지환씨도 물론 대환영이었다.

주례를 맡았던 손, 이 교수 부부는 "보통 유명인사 내지는 고위관리직 인사에게 주례청탁을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는데 신부측 부모의 오랜 친구인 우리 부부에게 주례를 맡긴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30년간 별탈없이 가정을 꾸려온 것이 큰 자격이라면 자격이겠지요"라며 평등한 결혼문화의 새장을 여는 시도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도 밝혔다.

"주례가 누구냐에 따라 집안의 품격을 자랑하던 종래의 관습을 깨고, 결혼은 남녀가 함께 하는 것이므로 새로 탄생하는 부부의 혼인약도 남녀공동의 주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평등한 결혼식이 아니겠냐"고 덧붙이기도.

손, 이 교수 부부도 결혼문

화를 축제분위기로 바꿔보는 시도를 딸의 결혼식을 통해 실천에 옮겼다. 신랑과 신부가 각각 부모님과 함께 입장을 했



부부공동 주례로 치러진 이수진, 윤지환 부부 결혼식.

고 손덕수 교수는 춤을 추며 들어 갔다고.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고 누군가 그랬다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결혼식을 다녀보면 마치 장례식을 보는 듯 했어요. 양가가 서로 새식구를 맞는 기쁨을 표현해 보는 자리가 바로 결혼식 아닌가요. 새로 가정을 꾸미는 신혼부부를 축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뜻

에서 춤을 추자고 제의했죠"손교수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거창한 결혼식에만 신경쓰는 것보다는 하객들에게 진정한 축

누히 외치고 있지만 우리 지도층들은 앞장서서 호화 결혼식의 사례를 낳아 왔다.

예식장 근처 일대가 교통혼잡까지 빚을 정도로 유명인사의 결혼식은 물밀듯 사람들이 모여든다. 화환수가 넘쳐 인도를 막고 결혼식날 하루 걸리는 축의금도 액수가 지나쳐 거의 뇌물에 가까운 것이 지금까지 지켜본 사회지도층의 결혼식이었다.

이한동(신한국당)의원의 자녀 결혼식은 주위사람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만의 조출한 결혼식을 치뤘 기성세대가 주도한 검소한 결혼식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지난 85년 이 의원이 민정당 사무총장 재직 시절에 치른 첫 딸의 결혼식은 그의 비서들도 모른채 지나갔다. 청첩장을 안돌린 것은 물론 결혼식 당일에도 이 의원은 점심식사를 하러 나간다고 비서진들에게 전하고 결혼식에 참석했다.

얼마전 영천시장의 자녀 결혼식에 역대 축의금이 견힌 것이 한동안 사회문제화되어 우리에게 씁쓸한 기억을 남겼다.

흔히 검소하고 간소한 혼례식을 치루는 것이 사회지도층부터 술선수범해야 한다고 누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작년 8월에 치른 아들 결혼식에는 가족을 포함한 하객수가 30명

정도였다고. 그날 결혼식에 참석했던 지도층 인사로는 국회 의장 뿐이었다.

한편 한국여성민우회에서 는 평등한 혼례문화와 전통적인 민족정서를 혼합한 결혼식의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신부 신랑이 함께 입장하여 맞절을 한 후 하객과 친지 앞에서 부부가 뒀에 있어서 마음가짐의 글을 담아 낭송한다. 함을 생략하고 예물로 반지를 교환한다. 기존의 혼례식의 성혼선언이나 주례사, 고전문 등을 대신해 친지와 친구들이 신혼부부에게 덕담을 들려주고 폐백을 없앴 것이 특히 눈에 띈다.

'월원피스를 입고 신랑신부 동시입장, 예물은 18K 반지와 시계, 함과 예단 생략, 예복은 한복을 무료로 대여, 주례를 따로 두지 않고 선배와 친구가 덕담으로 대신한다'

지난 9월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주최한 '평등한 혼례문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소개된 젊은세대의 혼례 사례들을 보면 그동안 관습처럼 굳어져 온 결혼문화를 과감히 접고 부모세대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킴으로써 부모자식간의 어쩔 수 없는 대립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하객과 장소, 축의금, 주례, 혼수의 파괴를 행하는 신세대의 결혼형태가 어른들에게는 '평창한 파격'으로 비쳐져 부모세대와의 갈등이 필수적이 었다. 혼수망국론까지 대두되는 우리의 결혼문화가 어쩌면 기성세대가 주도해 온 악습이었다면 혼주와 부모세대에 의해 건전하고 소박한 결혼문화로 바뀌고 있음을 드러내는 앞의 사례들은 새로운 혼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정희경 기자)